

참 맑은 물살

곽재구 시
정재민 곡

참 맑은 물살 / 광재구 시

참 맑은 물살
발가락 새 해적이네
애기 고사리순 좀 봐
사랑해야할 날들
지천으로 솟았네
어디까지 가나
부르면 부를수록 더
뜨거워지는 너의 이름

참 고운 물살
머리카락 풀어 적셨네
출렁거리는 산들의
부신 허벅지 좀 봐
아무 때나 만나서
한 몸 되어 흐르는
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

참 맑은 물살

곽재구 시
정재민 곡

[♩ = ca.40]

회문산에서, 자연을 홀로 바라보다
멀리서 은은히 들려오는 냇물 소리를 상상하며

Piano

6 Sop.

참 맑은 물 살 발 가 락

10

새 헤 적 이 네 애 기 고 사 리 순 좀

14

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 랑 해 야 할 날 들 지 천 으

18 *mp*

로 숫 - 왔 네 어 디 까 지 가 나

22 *mf* *p*

부 르 면 부 를 수 록 더 뜨 거 워 지

26 *p*

[♩ = ca.48]
점점 가까워지는 냇물 소리,
밀려오는 물살 같이

는 너 의 이 름

29

mp *cresc. - - - poco - - a - - poco - - -*

32

mp *sfz sub.mp p*

참 고 운 물 살 머 리 카

35

락 폴 어 적 셧 네 출 -

38

mf *rall.*

령 거 리 는 산 들 의 부 신 허 벅 지 - 줌

a tempo

41 **f**

봐 아 무 때 나 만 나 서

mf

44 **mp** *cresc. poco a poco*

한 몸 되 어 흐 르 - 는 눈 물

mp *cresc. poco a poco*

47 **f**

나 는 저 들 - 는 물

f **mf**

49 **ff**

나 - 는 저 들

ff *dim. poco a poco*

51

rall. *p*

눈 물

53 **Tempo Primo**

나 는 저 들 연 - 분 홍 사 - 랑

57

봐

61

rall. *p smorz.*